

맞벌이 가족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아파트 단위평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artment Unit Plans by Double-income Households Considering Life Style

이세나* / Lee, Se-Na
이현수** / Lee, Hyun-Soo

Abstract

With the change of family type and diversify of life style, residents need various unit plan in quality. A rate of economically productive women has increased, and generally double-income households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So a research is requested to consider the double-income households's satisfaction for a unit plan based on their life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double-income households's lifestyles, and to search and analyze users' needs for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their lifestyles, and then, embody spatial composition of Apartment Unit pla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Housing lifestyles of users living in apartment are categorized into 5 types: pursuing the trend and personality, pursuing the convenience and leisure, pursuing being domestic, making a livelihood and practicality, the type of unspecification. (2) The type of pursuing the trend and individuality requests new plan and a shower bath, the type of pursuing the convenience and leisure requests facility with home appliances and likes traveling and sports, the type of making a hearth and home wants a talk with their family and discuss some problem, the type of making a livelihood and practicality requests storage space, the type of unspecification wants a comfortable master bedroom zone. Consequently factors of residential space plan are need for double-income households.

키워드 : 맞벌이 가족, 라이프스타일, 단위평면, 공간구성 만족도

Keywords : Double-income Households, life style, Unit plan, Satisfaction of spatial compos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를 지향하여 건설사에서는 다양한 차별화 전략으로 품질의 고급화, 새로운 평면형의 개발, 새로운 공급 방식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공급은 양보다 질적인 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질적인 요구는 자본의 축적으로 물질의 풍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에서 인간의 감성이 더욱 다양화 차별화 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감성에 부응하는 주택의 개발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은희¹⁾의 공동주택의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규모에 관계없이 거주자들은 공간의 변경에 대한 요구

를 크게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간 변경은 리모델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리모델링 시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없는 벽식 구조의 구조적인 특성이다. 설비 시스템의 벽속 매입도 수선 및 교체와 위치 변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의 다양한 실험면 개발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주자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해 주거 공간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1%로 2004년 49.9%에서 0.2% 상승하였지만, 남성의 경우는 74.6%로 전년 대비 0.4% 하락하였다²⁾.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 미래에는 맞벌이 가족이 전업주부가족보다 좀 더 보편화될 것이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규모의 축소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촉발시켜 기혼여성의 취업률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맞벌이 가족은 결혼한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

** 이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1)이은희·정무용, 공동주택의 성능개선 요구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년 9월

2)통계청(2006년 7), 통계로 보는 여성, 보도자료, p.25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를 말하며, 가족은 대체로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가족에게 있어서 동거의 의미는 다소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변화는 맛벌이 가족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것은 요즘 주말부부, 월말부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맛벌이 가족의 증가는 이들의 가족 특성을 고려한 주택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맛벌이 가족에 대한 주생활 특성과 주거요구를 파악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추출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단위평면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주택평면 유형의 다양성을 가변형 주택의 개념과 함께 연계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1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맛벌이가족의 가사공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여성 주부만을 위한 공간에만 한정되어 왔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대체로 양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맛벌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거주자의 선호하는 공간구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요구에 맞는 단위평면을 구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맛벌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도출하고,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와 가족 구성원의 공간사용 등을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을 유형화 하고 계획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맛벌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어떠한가?
- 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 만족도는 어떠한가?
- 3) 맛벌이 가족에게 적절한 단위평면 유형은 무엇인가?

13. 연구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맛벌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생활 요구와 그에 따라 선호하는 단위평면 유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대가족형, 자녀중심형, 가사중심형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사회생활과 가사생활을 동시에 수행하여 효율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맛벌이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 맛벌이 가족은 산업 사회적, 도시적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이런 개념이 잘 적용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³⁾에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설계된 아파트 거

주자로 한정하기로 한다. 가구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⁴⁾인 관악구,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지역을 선정하였다.

3) 조사 대상은 평형은 아파트 평형대별 사례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85㎡를 중심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한정하기로 한다.

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위평면 유형은 구체적인 설계의 차원이 아니며, 단위평면의 공간 연결방식을 고려하여 배치한 다이어그램적 차원의 평면구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4. 연구방법 및 절차

첫째, 맛벌이 가족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요구를 기본으로 공간과 공간구성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맛벌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단위평면 공간구성을 위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된 데이터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주거만족도 등을 분석한다.

셋째, 분류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도, 각 실별 우선순위, 가족별 사용 시간대, 선호하는 단위평면 유형 등을 도출한다.

15. 선행연구

라이프스타일은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반 계층의 특징적 생활양식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고양식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적 차이를 전체적인 형태로 나타낸 말이다. 거주자 라이프스타일의 유형화는 주택을 거주자에게 공급할 때, 수요자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택을 설계하고 수요자의 변화 또는 변경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공간적 특징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거나, 가족의 만자녀 또는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제한하는 등의 연구는 연구의 신뢰도 측면에서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박준영(2003)의 임대주택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가변적 공간구성 계획방법 개발연구에 의하면 수납중심형, 대가족형, 거실중심형 등 가족과 공간사용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평면특성은 수납공간 활용, 효율적인 공간정리 활용 등으로 분석하여 공간 구성 계획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사생활의 효율을 필요로 하며, 가사생활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수행하여야하므로 공간이나 시설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 km 이내의 경기도 19개 군을 포함한다.

4)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 통계청 2005년

3)수도권이란 서울과 인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 등의

면에서 무엇보다도 고려가 많이 필요한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거주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 1> 선행연구

연도	저자	연구주제	연구내용
2003	이창범	도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한 주거계획	· 라이프스타일의 분석을 매개로 하여 그에 따른 거주자의 요구와 특성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주거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주거의 가변요소 계획을 통한 다양성을 제안
2004	한주희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 맞벌이 가족의 생활특성과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검토하여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 · 막내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가사작업과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음
2005	김석경	맞벌이 가족의 주생활 특성 및 주요구에 관한 연구	·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른 주생활과 주요구에 관련된 특성 분석 · 여러 가사일을 동시에 처리하므로 유기적인 실배치 고려, 수납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가족단위를 위한 공간 필요

2. 조사방법

2.1. 조사방법

맞벌이 가족이라는 상황이 낮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는 표본조사이다. 따라서 집단토론이나 장시간에 대한 면접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1대 1면접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원하는 곳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맞벌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전반적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맞벌이 가족에게 1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 설문지법으로 작성한 102(92.7%)부를 1차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 했으며,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5% 이상이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 가능한 전체 응답자의 약 15%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2. 조사설계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전용면적 85㎡를 중심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정하며 거주자는 맞벌이 가족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맞벌이 가족은 여성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성이 많이 일하는 업종의 사무실이나, 병원, 학교, 상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서 맞벌이 가족이란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가족유형을 의미한다. 두 번째 조사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형화 한 뒤, 좀 더 구체적으로 단위평면과 주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서 설문지에 성실히 답한 응답자 중에서 가족 구성원수, 직업, 소득 등 일반

사항의 응답이 유형의 평균값과 근접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은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2006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10부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는 구조적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배포하여 응답자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한 후 응답자의 반응을 검사하여 설문 문항을 재검토 하였으며, 애매한 문항은 수정하고 용어를 정리하였다. 응답하기 편리하도록 표를 수정하였으며 단위평면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을 더 추출하여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본 설문지를 전문가1인, 박사과정2인, 석사과정 5인에게 심문을 받음으로써 연구의 확증을 받아 타당성을 높였다. 설문조사는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은 일차 분석이 종료된 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대 1방법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3. 조사내용

구성된 설문 문항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일반 사항으로 가족구성원의 나이, 성별, 직업과 월평균 소득, 거주 지역, 종교, 근무시간에 관한 문항이다. 둘째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선행연구 장재호(1997)이후부터 김석경(2005)까지의 연구들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여가시간 활동, 가사일, 가족간의 친밀성, 편리성, 경제성, 공간의 활용도 등에 관한 15문항으로 문항이며, 응답자가 거주하는 단위평면을 간단하게 그리도록 선별하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수정하였다. 셋째는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의 구성과 만족도에 관한 질문과, 거주자가 원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기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단위평면을 조사하고, 필요한 공간개수를 설정하며, 공간의 구성 방식을 조사하였다. 둘째, 공간의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공간별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공간별 점유시간을 테이블로 기록하였다. 셋째, 공간과 공간과의 연결 방식, 전면배치 공간, 사적과 공적인 공간의 분류, 주택 외부와의 관계, 인접관계, 시각적 연결 관계 등을 파악하여 공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 배치를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현관과 거실이 정면으로 보이는 경우, 시선이 꺾여서 보이는 경우 등 여러 경우 중에서 원하는 배치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급순위가 높은 건설사(5)에서 최근 2005년에서 2007년 수도권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평면을 수집하여 거주자가 선호하는 단위평면 사례를 선택하도록 하여 단위평면 유형을 파악하였다.

5)2006년 도급순위가 높은 건설사인 삼성물산(건설), 현대건설(산업개발), 대우건설, 대림산업개발, GS건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설문결과를 이용해 요인분석, 군집분석, 신뢰도 분석,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 하였다.
- 2)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에 대하여 전면 Bay와 진입방식에 따른 만족도 비교, 공간별 우선순위 등을 빈도와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을 다이어그램으로 유형화 하며,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령, 성별, 직업, 일하는 시간, 수입, 종교 등을 가족구성원 모두 조사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통하여 거주자의 스타일을 파악하며, 단위평면에 대한 만족도를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15개 항목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알파값이 0.621이었다.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102명으로, 성비는 남성 9명(8.8%), 여성 93명(91.2%)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수는 2명에서 6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에 따른 분포는 2인 20가족(19.6%), 3인 31가족(30.4%), 4인 45가족(44.1%), 5인 5가족(4.9%), 6인 1가족(1%)이었다. 맞벌이 가족의 부부는 조사대상자와 배우자로 각각의 연령대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가족의 연령 분포도 (n=102)

나이	조사대상자		배우자	
	빈도	%	빈도	%
21-30	7	6.9	2	2.0
31-40	40	39.2	37	36.3
41-50	33	32.4	35	34.3
51-60	21	20.6	22	21.6
61-70	1	1.0	6	5.9
합계	102	100	102	100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국민 주택규모를 중심으로 평형대를 한정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 보다는 중년층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한 가구가 많이 나타났다. 그에 따라 가족 구

성원 수에서도 2인보다는 3~4인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소유여부에는 자가 76.5%, 전세가 21.6%, 월세가 2%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으로는 일반사무직, 자영업, 교수/교수, 전문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직업 역시 일반사무직, 자영업, 전문직, 교수/교사 등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근무제도가 주 5일제로 변경되면서 65% 이상이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서 가사와 육아돌보기를 병행하며 일을 하는 경우도 15%정도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의 전체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0~400만원이 20.6%이다. 이것은 2006년 평균 가구 소득인 3,056,825원 보다 많은 것이다.

3.2.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생활과 관련된 15개의 설문항목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모델은 요인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요인회전은 직각회전의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수는 초기 아이겐 값 1.0이상인 요인만 선정하여 6개를 추출하였으나 Scree test한 결과 5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고유 값은 그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므로 이 값이 큰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항목의 공통성은 15개 모두 사회과학에서 인정되는 0.4의 기준을 넘었으며 추출된 값은 <표 3>과 같다. 각 요인별 성향을 대표할 수 있는 형용사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휘로 선정하였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성향	포함항목	요인적 재량	고유값
요인 1 : 유행, 개성중심			
	주택내부에서 새로운 것이나 혁신적인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834	1.868
	욕실의 욕조대신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716	
	내부공간의 편안함이나 기능보다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을 선호한다.	.698	
요인 2 : 편리, 여가중심			
	여행이나 스포츠 등 여가를 자주 즐기는 편이다.	.808	1.800
	가사일을 보조하는 기구나 가전제품을 많이 구입한다.	.691	
	다른 방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서재나 취미실 등을 만들고 싶다.	.571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편리한 생활을 하고 싶다.	.481	
요인 3 : 가정중심			
	집에 있을 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한다.	.762	1.718
	식사는 주로 가족이 함께 한다.	.684	
	가족과 문제를 곧잘 상담한다.	.667	
요인 4 : 생계유지, 실용중심			
	방의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선호한다.	.751	1.517
	환경보존에 관심도 많고, 분리수거 실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700	
요인 5 : 자기, 역할중심			
	가정의 가사노동은 남편이나 자녀와 함께 나누어 분담한다.	.748	1.514
	옛날부터 계승되는 제사와 같은 관습과 행사를 자주 치르시는 편이다.	.666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기곤 한다.	-.666	

5개의 요인별 군집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산분석(ANOVA)한 결과 4개 요인은 유의확률이 $\alpha=0.05$ 보다 작음으로 군집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5번째 요인은 0.07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군집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3.3. 군집분석

군집분석의 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나온 5개의 요인 중에서 분산분석결과 유의성이 없는 5번째 요인을 제외하고 4개의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을 5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성 비율은 <표 4>와 같다.

<표 4> 집단간 구성비 (n=102)

군집	빈도(F)	퍼센트(%)
1	14	13.7
2	10	9.8
3	26	25.5
4	28	27.5
5	24	23.5
합계	102	100.0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는 집단들이 각 요인의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형간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유형 및 개성추구는 집단 1이 가장 높으며, 편리 및 여가중심은 집단 1을 제외하고 집단 3이 높으며, 가정중심은 집단 4, 생계유지 및 실용중심은 집단 2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유형의 성향 파악을 위한 유형별 평균치는 <표 5>와 같으며, 특히 집단 5는 거의 모든 요인에서 부정적인 값을 가지고 있으며 두드러진 집중 현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5> 유형별 평균

	유형, 개성중심	편리, 여가중심	가정중심	생계유지, 실용중심
집단 1	1.05175	0.882607	-0.94645	-0.04171
집단 2	-0.22566	-1.67421	-1.01884	0.4596
집단 3	-0.80099	0.67234	-0.00243	0.594599
집단 4	0.716771	-0.21045	0.80322	0.305221
집단 5	-0.48799	-0.30011	0.042152	-1.16741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기준으로 최후 중심치를 살펴보았다. 라이프스타일로 구분된 각 집단은 편리 및 여가중심요인이 강한 집단 3과 가정중심 요인이 강한 집단 4가 유사한 성향을 보이며, 유형 및 개성중심요인이 강한 집단 1과 생계유지 및 실용중심요인이 강한 집단 2는 2.903으로 서로 가장 많은 차이가 있었다.

<표 6> 세분유형간 거리

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1	0.000				
집단 2	2.903	0.000			
집단 3	2.185	2.625	0.000		
집단 4	2.119	2.525	1.953	0.000	
집단 5	2.452	2.394	2.037	2.051	0.000

3.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일반적 특성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에 대한 만족도와 공간별 우선순위 등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연령은 조사대상자와 배우자의 연령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여성이었으므로 배우자의 연령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 1은 14사례로 40대의 연령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 2는 사례수가 가장 작은 10사례로 30 또는 40대가 많은 편이었고, 집단 3은 26사례로 30대가 가장 많고 50대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집단 4는 28사례로 30또는 40대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많았다. 집단 5는 24사례로 여러 연령대가 고루 분포된 집단으로 30대와 50대가 어느 정도 나타났고, 다른 집단과는 달리 20대가 속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이 하나의 연령대로 별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기존 연구의 첫째 자녀 또는 막내 자녀의 나이로 가족유형을 분류한 연구가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연령 분포

	연령대	비율(%)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조사 대상자	21-30	6.86	1	0	2	0	4
	31-40	39.22	2	4	11	14	9
	41-50	32.35	10	4	5	10	4
	51-60	20.59	1	2	8	4	6
	61-70	0.98	0	0	0	0	1
	합계	100	14	10	26	28	24
배우자	21-30	1.96	0	0	1	0	1
	31-40	36.27	3	5	7	10	12
	41-50	34.31	7	4	10	12	2
	51-60	21.57	4	1	5	6	6
	61-70	5.88	0	0	3	0	3
	합계	100	14	10	26	28	24

집단 1의 직업으로는 자영업이 6명(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의 직업으로는 일반사무직이 5명(35.7%), 자영업이 4명(28.6%)으로 배우자와 직업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5일이 57.1%, 3일이 35.7%였으며, 하루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 64.8%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는 5일근무가 85.7%,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 64.3%로 나타났다. 자영업이라는 직업의 성격을 이용하여 하루의 근무량이나 주말에 일을 하는 등의 다양하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생활한다.

집단 1은 유행 및 개성중심 요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살고 있는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주택가격이 적정하여서가 42.9%, 주택의 내부시설이 좋아서가 35.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집단은 주택을 선택할 때에도 유행이나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2는 4인 가족이 70.0%이었다. 직업으로는 자영업과 일반사무직이 각각 4명(40.0%), 3명(30.0%)이었으며, 배우자도 일반사무직과 자영업이 각각 5명(50.0%), 4명(40.0%)으로 그에 따른 소득은 200~300만원과 300~400만원이 각각 40%로 고루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5일이 50.0%, 6일이 30.0%였으며, 하루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 3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0시간과 11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각각 20%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6일근무가 40.0%,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 40%이다. 이것으로부터 9시간부터 최대 15시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집단보다 근무시간이 길어 가사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집단이다.

집단 2는 생계유지 및 실용중심 요인이 긍정적인 값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부정적인 값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30%가 남성이어서 주생활과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집단은 맞벌이 가족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집안일에 소홀한 편이며, 집안의 공간 활용은 생활중심보다는 수납물품을 잘 보관하고 쉽게 정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살고 있는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주택가격이 적정하여서 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내부 구성보다는 경제적인 것을 많이 고려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집단 3의 직업으로는 일반 사무직이 10명(38.5%)으로 가장 많으며, 배우자의 직업역시 일반 사무직이 8명(30.8%), 전문직이 7명(26.9%)으로 가장 많았다. 편리 및 여가중심 요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주거 내 여가활동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는 61-85㎡가 53.8%로 가장 많았으며, 60㎡이하의 평형대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약 20%정도 나타났지만 86㎡이상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약 20%정도 나타났다.

집단 4의 직업으로는 일반사무직, 교수/교사, 전문직이 고루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직업으로는 자영업이 11명(39.3%), 교수/교사가 6명(21.4%)으로 그에 따른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32.1%, 400~500만원이 25.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5일이 75.0%였으며, 하루 일하는 시간은 9시간이 35.7%, 8시간이 32.1%였다. 배우자 역시 5일이 67.9%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이 39.3%, 8시간이 35.7%로 나타났다. 일반 사무직은 근무시간이 일정한 반면 자영업의 경우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배우자의 근무시간이 많게 나타났다.

집단 4는 가정중심 요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유행 및 가치표현 요인도 높게 나타난 편이다.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긍정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집단으로 자녀중심으로도 볼 수 있다. 거주기간은 2-4년이 46.4%, 1년 이하가 21.4%로 연령대가 젊은 만큼 거주 기간이 길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주택가격이 적정하여서 또는 교통이 편리하여서 라고 응답하였으므로 경제적인 상황과 근무지를 고려하여 주거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단 5의 직업으로는 일반사무직이 58.3%이며, 배우자의 직업 역시 일반 사무직이 50.0%, 임원/관리직이 25%였다. 주거의 소유 형태는 58.3%가 자가, 33.3%가 전세, 8.3%가 월세였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주택가격과 교통이 편리하여서라고 각각 33.3%응답하였다.

집단별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집단별 특징

	일반적 특징	라이프스타일 특징
유행, 개성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13.7% · 연령: 40대 · 소득: 500만원 이상 · 가족구성: 4인 (64%), 3인 (21%) · 근무시간: 40시간 · 평형대: 61-85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내부에서 새로운 것이나 혁신적인 것을 선호, 편리함보다 자신의 개성 추구
편리, 여가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9.8% · 연령: 30,40대 · 소득: 2~400만원 · 가족구성: 4인 (70%) · 근무시간: 48시간 · 평형대: 61-85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났으며, 방의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더 선호 · 환경보존에 관심이 없으며 있어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함
가정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25.5% · 연령: 30대 · 소득: 500만원 이상 · 가족구성: 4인(46%), 3인 (35%) · 근무시간: 40시간 · 평형대: 61-85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이나 스포츠 등 여가를 자주 즐기며, 가사일을 보조하는 기구나 가전제품을 구입 · 다른 방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서재나 취미실 공간 선호 ·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편리한 생활 선호
생계중심, 실용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27.5% · 연령: 30, 40대 · 소득: 500만원 이상 · 가족구성: 3인 (46%) · 근무시간: 45시간 · 평형대: 61-85 (54%), 60㎡이하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 있을 때에는 가족과 대화를 자주하며, 식사는 주로 가족이 함께하고, 가족과 문제를 잘 상담함
불특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23.5% · 연령: 20, 30, 50대 · 소득: 500만원이상(38%), 200~300만원(25%) · 가족구성: 2인 (38%), 4인 (33%) · 근무시간: 40시간 · 평형대: 61-85 (50%), 60㎡이하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요인의 값이 부정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3.5.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단위평면 유형분석

(1) 유행 및 개성중심형

집단 1은 유행 및 개성중심형으로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은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부부욕실, 자녀실1,

자녀실2로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유형이다. 103㎡이상 큰 평형대의 사례수도 21.4% 나타났으며, 이 단위평면의 공간은 드레스룸과 자녀실3이 추가된 형태이다. 응답한 공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부엌, 거실, 안방, 공용욕실, 자녀실1, 현관으로 나타났으며, 웰빙의 열풍으로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부엌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공적공간을 사적공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엌과 욕실에서 불만족이 나타났으며, 유행 및 개성추구유형에 속하는 집단인 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2) 생계유지 및 실용중심형

집단 2는 생계유지 및 실용중심형으로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은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부부욕실, 자녀실1, 자녀실2로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유형에 살고 있다. 공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거실, 부엌, 안방, 공용욕실, 자녀실1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자녀보다는 부부중심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현대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단위평면 유형은 전형적인 공간구성으로 별다른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형대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통 또는 만족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3) 편리 및 여가중심형

집단 3은 편리 및 여가중심형으로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은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자녀실1, 자녀실2로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유형과 부부욕실이 추가된 유형이었으며, 공간의 개수는 같으나 3bay 형태의 유형도 나타났다. 공간의 우선순위는 거실, 부엌, 안방, 자녀실1, 공용욕실이었으며, 만족도에서도 현관과 욕실에서 불만족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욕실이 한 개인 단위평면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반신욕이나 아로마 마사지 등 욕실에서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하는 요즘 욕실에 대한 요구가 예전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단위평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의 단위평면이 편리한 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정중심형

집단 4는 가정중심형으로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은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부부욕실, 자녀실1, 자녀실2로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유형과 드레스룸이 추가된 유형이었다. 공간의 우선순위는 거실, 부엌, 안방, 자녀실1, 자녀실2이었으며,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자녀실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그리고 평형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관과 욕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공간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5) 불특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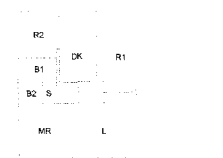

집단 5는 불특정형으로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은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자녀실1, 자녀실2로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유형과 부부욕실이 추가된 유형이었다. 공간의 우

선순위는 거실, 안방, 부엌, 자녀실1, 자녀실2로 다른 유형과 달리 안방과 자녀실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보아 공적공간보다는 사적공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50대부부가 성장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집단으로 자녀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단위평면의 만족도는 부엌과 욕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단위평면의 면적이 다른 유형에 비해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2인 가족이 속하여 있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지 않게 나타났다.

4. 심층면접 결과

단위평면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공간 개수, 공간 규모, 공간배치 등이 있다. 심층면접은 이를 조합하기 위한 거주자의 요구, 행위, 특성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과 단위평면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실의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실의 관계, 실과 실의 관계, 제한요소와 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공간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주호 접근방식은 계단실형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표 9>은 심층면접에 따른 단위평면 유형화 과정의 한 예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5가족을 파악하였으며, 선호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요구도를 적용하여 다이어그램을 도출하였다.

<표 9> 가족 1번의 단위평면 유형화 도출과정

단계	공간 구성	단위평면 유형화
1	현재 단위평면	
2	공간개수 선정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부부욕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자녀실1, 자녀실2, 서재, 창고
3	공간 우선순위	부엌/식당, 거실, 안방, 공용욕실, 자녀실1, 자녀실2, 현관, 부부욕실
4	공간배치	· 현관-거실 : 현관에서 거실로 시선이 켜여 보임 · 거실-부엌/식당 : 두 공간이 폐쇄된 꺾인 배치 · 가족이 사적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음
5	선호하는 사례	
6	요구도 적용 가능성	· 부엌/식당 - 거실 꺾인 배치 : 평면유형이 점차 · 현관-거실 시선이 꺾인 배치 ·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고 제공 · 안방공간을 줄여서라도 서재공간을 선호

선행 연구(맛벌이 가족의 주거요구, 김수경, 2001)에 의하면 자녀실이 안방보다 커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

의 크기와 배치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가장 큰 공간으로 거실(81.2%)을 원하였으며, 자녀실(38.4%), 부엌(22.2%), 안방(21.3%)의 순으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보다는 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실, 서재, 드레스룸, 운동실, 전실 등 편리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가족 구성원이 변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알맞은 주거공간을 계획하는 차별화 요소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가변형 주택의 설계방식과 손쉬운 리모델링 방법 요구된다.

4.1. 유형, 개성중심형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부부욕실, 공용욕실, 자녀실1, 자녀실2 공간으로 구성된 단위평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드레스룸, 파우더룸, 서재, 창고의 공간을 더 필요로 한다. 이 집단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이 분리된 배치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학생인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기능이나 편리성보다는 개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단위평면 유형분석 결과 복도형 진입방식 때문에 부엌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엌이 보조주방이나 발코니와 연결되어 외기에 면하는 공간구성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관역시 복도-현관-실내의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실을 따로 계획하기 보다는 현관의 면적을 넓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실과 부엌/식당은 가구나 문에 의해서 반 개방된 일자 배치를 하거나, 벽이나 문으로 완전히 폐쇄되고 꺾여서 배치된 공간 구조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0> 유형, 개성중심형

단위평면 유형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3Bay로 전면에 거실과 자녀실 배치 거실-부엌/식당 개방된 꺾인 배치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고 제공 안방 발코니를 확장하여 서재 공간 확보 가능: 부부가 함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방과 근접한 곳에 서재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상형 구조로 거실, 안방, 자녀실1, 자녀실2가 외기에 면함 거실-부엌/식당 반개방 일자 배치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고 제공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분리 창고: 가구 칸막이를 이용하여 다른 공간과 분리하는 역할

* 단위평면 유형에서 각 기호가 의미하는 공간은 다음과 같다. (L: 거실, K: 부엌, D: 식당, MR: 안방, R: 자녀실, B1: 공용욕실, B2: 부부욕실, Dr.R: 드레스룸, P0.R: 파우더룸, S: 창고 또는 수납장, U: 다용도실)

4.2. 생계유지, 실용중심형

현재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부부욕실, 공용욕실, 자녀실1, 자녀실2로 구성된 단위평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드레스룸, 창고 공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주로 작은 평형대에 거주하다보니 공간이 개방되어 넓어 보이는 유형과 창고 같은 수납공간을 이용하여 깨끗하고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였다. 주택 내부 진입은 복도-현관-실내의 구조를 선호하였으므로 전실을 따로 계획하기 보다는 현관규모를 조금 넓게 하여 수납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거실과 부엌/식당은 가구나 문에 의해서 반 개방된 일자 배치를 요구하였으므로 역시 수납가구 칸막이를 이용하여 부엌에 수납공간도 제공하고 거실과 시야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 생계유지, 실용중심형

평면유형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상형으로 거실공간의 2면이 발코니와 연결됨 거실-부엌/식당 개방된 일자 배치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고 제공 각 자녀실에 수납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3Bay로 전면에 거실, 안방, 자녀실 배치 거실-부엌/식당 개방된 일자배치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고 제공 각 방마다 제공되는 발코니를 이용하여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확장 가능

4.3. 편리, 여가중심형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자녀실1, 자녀실2 또는 부부욕실이 첨가된 단위평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전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서재 공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특히 전실, 서재, 창고, 운동실, 팬트리수납장 등 여가생활과 관련된 공간이나 주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가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공간을 줄여서라도 효율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요구가 강하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을 이용하여 서재나 창고 공간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만족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공간이 3Bay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기에 면하는 공간이 많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았다. 복도형에서도 만족도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이웃 세대와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으로 현관진입 후 부엌/식당이나 거실로 시선이 차단되어 연결되는 방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거실과 부엌/식당은 가구나 문에 의해서 반개방된 일자 배치이거나, 개방된 꺾인 배치를 선호하였다.

<표 12> 편리, 여가중심형

평면유형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Bay로 전면에 거실, 부엌, 안방 배치 · 거실-부엌/식당 반개방된 일자 배치 · 전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Bay로 전면에 거실, 안방, 자녀실 배치 · 거실-부엌/식당 반개방된 일자배치 · 전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고, 서재 제공 · 자녀실과 연결된 서재공간을 이동식 칸막이로 설치하여 필요 없을 시에는 제거하여 자녀실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표 13> 가정중심형

평면유형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Bay로 전면에 거실, 안방, 자녀실 배치 · 거실-부엌/식당 반개방된 일자 배치 · 전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창고 제공 · 자녀실에 창고를 별도로 제공하여 자녀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Bay로 전면에는 거실과 안방과 부엌 배치 · 부엌-식당-거실 : 7자 개방형 공간구조 · 전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제공

4.4. 가정중심형

현재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부부욕실, 공용욕실, 자녀실1, 자녀실2로 8개로 구성된 단위평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전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른 공간들보다 특히 거실과 자녀실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 유형은 30대 부부와 1자녀형으로 국민주택규모에 살기에 적합한 유형으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보다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자녀가 성장할 경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내부 진입은 복도-전실-현관의 구조를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모차나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자녀들의 용품이 증가하면서 전실이 하나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발코니 역시 아이들의 장난감 수납과 놀이공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거실과 부엌/식당은 가구나 문에 의해서 반개방된 일자 배치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거실-부엌-식당 세 공간이 개방된 일렬배치와 거실과 부엌/식당이 개방된 꺾인 배치 등을 다양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부엌의 작업공간은 대면형으로 자녀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거나, 테이블에서 공부나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엌/식당 공간 옆에 배치된 자녀실에 가변형 요소를 주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현재는 이러한 유형이 큰 평형대에만 제공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가변형 요소는 주거생활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큰 평형대가 아닌 작은 평형대에서 제공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옷은 손세탁을 많이 해야 하므로 발코니에 서서 손세탁하는 공간이 제공될 원하며, 이것은 남편의 가사참여도를 높이지게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건조공간이 제공된다면 한 번에 세탁을 처리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4.5. 불특정형

현재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자녀실1, 자녀실2로 구성된 단위평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이 필요하다. 다른 공간들보다 특히 부부전용공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 아파트 출현 이후 일반화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며, 부부전용공간이 자녀실과 분리된 배치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이 집단은 주택 내부 진입은 복도-현관-실내의 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거실과 부엌/식당은 서로 개방되어 있지만 꺾여서 서로 시야를 차단한 배치를 좋아한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배치는 가구나 벽에 의해 반 개방된 일자배치이다.

<표 14> 불특정형

평면유형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Bay로 전면에는 거실, 안방, 부엌 배치 · 거실-부엌-식당 : 7자 개방형 공간구조 · 부부전용공간과 분리된 자녀실공간 · 현관에서 공적공간으로 시선 꺾여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Bay로 전면에는 거실, 안방, 자녀실 배치 · 거실-부엌/식당 : 반개방형 일자 배치 · 부부전용 공간과 분리된 자녀실 공간 · 1개의 자녀실: 나머지공간을 넓게 사용 · 현관에서 공적공간으로 시선 꺾임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의 주거생활 특성과 요구를 조사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추출하고, 분류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생활 행태와 선호하는 단위평면 사례를 조사하여 관

계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적합한 단위평면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단위평면의 계획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행 및 개성중심형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분리하여 가사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하므로 가구 칸막이나 벽체가 사선으로 꺾여 시야를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평면계획을 필요로 한다.

둘째, 생계유지 및 실용중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많은 만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만큼 다림질, 세탁, 청소, TV시청, 식사준비 등 동시에 여러 가사 일을 수행하므로 One-Stop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평면계획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용도실이나 창고형 수납공간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편리 및 여가중심형은 가족구성원 모두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줄여서라도 전실, 서재, 창고, 팬트리수납장 등 여가와 관련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여가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많아지는 수납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평면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중심형은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가사일과 세탁근무를 동시에 하는 유형으로 거실과 부엌과 식당의 연결방식과 배치방법이 중요하다. 자녀가 아주 어릴 경우 안방에서 함께 생활하기 하거나, 자녀가 성장하여 혼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 자녀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녀실은 유아용품 스스로 정리하고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창고형 수납공간이 필요하다.

다섯째, 불특정형은 부부전용공간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다른 사람들로 부터 프라이버시 확보가 중요하므로 부부전용공간과 자녀실 공간을 분리하여 배치한다. 점차 개인주의적 사고가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게 여기므로 시야나 소음 등을 간접적으로 차단해 주는 연결방식으로 차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맞벌이 가족을 위한 단위평면 유형을 고려하여 설계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가사일과 사회생활로 스트레스 받는 주부와 가족 구성원을 위해 주거의 만족도가 상승하게 되어 편리성과 안락감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맞벌이 가족은 바쁜 생활로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도가 형성될 시간과 노력이 비맞벌이 가족에 비하여 낮은 편이므로, 공간의 동선이나 배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가족 사이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단위평면은 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시켜주므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가변형 주택이 개념이 도입되고, 거주 후의 리모델링이 손쉬워 진다면 노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상승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거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석경·임미숙, 맞벌이 가족의 주생활 특성 및 주요요구에 관한 연구; 막내자녀 연령별 특성분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권 10호, 2005
2. 김수현, 아파트 단위평면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집, 1999
3. 박혜숙, 생활양식에 따른 실내디자인 선호유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집, 2000
4. 백혜선, 아파트 평면유형에 대한 거주자 선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집, 1990
5. 이창범, 도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주거 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문숙재,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권 3호, 2003
7. 박문서, 주택시장의 활성화 동계 및 대안: 831 주택정책의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8호, 2006
8. 장상욱, 맞벌이 가정의 주부와 남편을 통해 본 가사공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권 6호, 2005
9. 장재호,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공간주택 거주자의 세분화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10호, 1997
10. 한주희,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접수 : 2006. 12. 31>